

# 효창공원 역사, 이용행태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지윤 · 김관수 · 배세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I. 서론

조선시대 왕실의 묘로 시작된 효창공원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며 여러 정체성이 혼재되었으며, 현재는 독립운동가 8인이 안장된 선열 묘역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더불어 근린공원으로 적극 활용됨에 따라 기존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특이성이 있는 효창공원의 역사와 이용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효창공원에 대한 활용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거주민이자 주 이용 계층인 고령층의 모바일사용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효창공원의 여러 면모를 능동적으로 담기 위함이었다.

여태까지 효창공원의 변화과정은 새로운 것들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기억을 소거해 가는 방식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 이 과정은 장소의 성격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들기보다 혼재된 역사의 기억으로 보이게 했다. 때문에 공원의 기억과 흔적을 되살리기 위해 하나의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또다시 이전의 기억을 지워가는 방식이라 보기에 이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 효창공원 부지가 1786년 문효세자 묘역으로 조성되었을 당시부터 효창공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공원의 이용 행태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근래 효창공원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와 효창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매개를 통해 앞으로 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본론

### 1. 효창공원의 역사 및 이용행태

정조10년, 문효세자가 서거하면서 묘역이 조성되었고(1786년), 묘소도감의궤(墓所都監儀軌)에 따른 통례에 의해서 고종7년 효창묘에서 효창원으로 승격되었다(1870년). 이 시대의 효창원은 왕실의 신성한 묘역으로 관리의 대상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에 의한 군사기지인 병참부가 설치되었는데(1894년), 일본인들이 군용지역 주변에 집중거주

하게 되면서 이들에 의해 녹지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뒤, 묘역을 준치한 채 일시적으로 골프장이 조성되었다가 폐쇄되었다(1921년~1924년). 법적 공원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효창원 북동쪽 일부의 토지가 공원으로 활용되면서 공간성격변화의 변이점으로 작용하였으며(1924년), 추후 총독부 고시 208호로 법적인 공원으로 고시되었다(1940년). 당시 신문 기사에 효창공원은 '모던공원', '경성 명물' 등으로 설명되면서 공원에 대한 인식이 현대적이며, 시민을 위한 공공성 그리고 휴식과 놀이를 위한 유흥성이 공존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후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산재한 분묘를 이왕직이 집장 관리한다는 명목아래 생긴 서삼릉으로 효창묘역의 이전이 이뤄졌다(1944년). 이렇게 일제에 의해 왕가의 묘역이 군사기지, 골프장, 공원으로 이용되며, 이러한 행태가 공존하게 되었다.

해방 후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되었고(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의 유해도 그로부터 몇 년 뒤 안장되면서(1949년)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되었다. 그러면서 효창공원은 근린공원과 선열묘역에 대한 추모행위가 공존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선열묘역이 된 후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정치적으로 반했던 이승만 정부세력과의 대립하는 형국이었다. 효창운동장 건립(1960년)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제2회 아시아 축구대회가 개최되고(1960년) 원효대사 동상건립(1969년), 반공투사위령비 건립(1970년), 노인회관설립(1972년)과 같은 공원 내 통일성 없는 여러 시설물이 난립했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의 효창공원 성역화 발언이 있었고(2017년),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구성안을 발표하였다(2019년).

### 2. 이용자 인식조사

2019년 4월 연구자가 진행한 효창공원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주 공원의 주 이용자들은 주변 거주주민장년층이다. 둘째, 이용행태의 특징은 주로 휴식과 산책 그리고 운동 목적

에 있으며, 공원 곳곳의 산책로를 주로 이용한다.

셋째, 공원에 대한 의견은 독립투사들이 안장된 사적지 성격 을 띄는 공원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근린 생활 공원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는 약 10년 전 진행된 효창공원 이용자 인식 조사(용산구 청, 2008년 9월)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효창공원의 역사와 이용행태의 변화 그리고 이용자인식조사 를 토대로 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 '효창 공원 사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이는 현재 효창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용자들이 직접 공원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가 미래 의 흔적들을 게시할 수 있기에 효창공원의 흔적된 흔적들을 가 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세부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효창공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대외적으로 기록된 사실뿐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과거 효창공원에서 실제 주민들 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담았으며,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지 역공동체 및 개인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사 람들의 지속적인 사용과 함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는 특징을 가진다. 효창공원에서 직접 녹음한 소리들을 통해 같은 공간에 다양한 레이어의 기억이 공존함을 시사하였다.

###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창공원의 역사, 이용행태 등의 변화과정을 해석하면서 공원의 기억과 흔적을 되살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 재 혹은 미래의 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 인 플랫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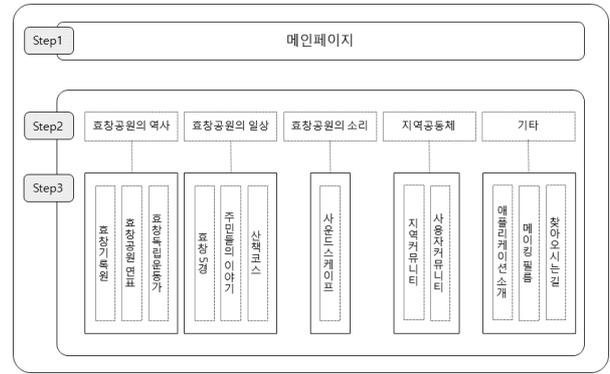


그림 1. '효창공원 사용법' 애플리케이션 구성도

을 수행해 보았다. 이는 물리적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창공원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보았으며,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장소에 대한 중첩적인 설명과 사용 그리고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모바일 플랫폼은 전통적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출시과정을 진행하면서 홍보,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요소로 남아 있으며, 콘텐츠 개발과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영역의 전공 교류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김규연, 이경호, 김한옥, 박동석, 최종희(2007) 도심지에 위치한 사적지 일원의 경관보전 관리방안.
2. 조상우, 신용호, 광성연(2013) 일제 강점기 경성골프사. 한국체육학회지.
3. 김해경(2010)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 해석.
4. 박인재, 이재근(2002)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5. 용산구청(2008) 효창공원 역사적 가치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서울학연구소.
6. 남숙희 (2013) 문학수업의 효율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저작도구의 활용.